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제 목 : [BOK 강원경제 메모 2호] 최근 중국경제와 강원지역 對中 수출상황 평가

- 본 고에서는 최근 중국경제 회복 지연이 강원지역 對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품 및 관광소득 측면에서 분석하고 전망
- 강원지역 對中 수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 발굴, 신수요 창출, 신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

※ 주요 내용은 <붙임1>[BOK 강원경제 메모 <2023-2호>]을, 보다 자세한 내용은 <붙임2>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[BOK 강원경제 메모]를 작성하고 있음

문의처 : 기획금융팀 과장 정용준

Tel : (033) 258-3291 Fax : (033) 258-3239 E-mail : gangwon@bok.or.kr

“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/gangwon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**BOK**  
**강원경제**  
**메모**  
**<2023-2호>**

한국은행 강원본부  
기획금융팀  
2023년 10월 4일(수)  
작성자: 정용준 과장  
(033-258-329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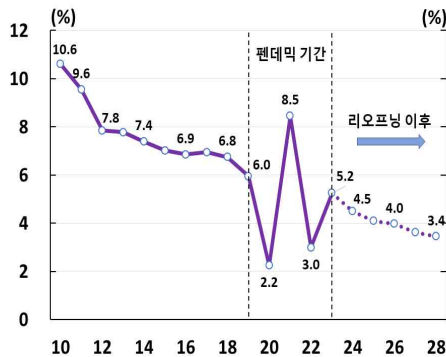
**최근 중국경제와 강원지역 對中 수출상황 평가**

- **[현황]** 최근 중국의 수출 둔화,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강원지역 對中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
- **[전망]** 향후 상품수출은 단기간 내에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으나 관광소득(서비스수출)은 빠르게 회복할 전망
- **[대응]** 수출 유망상품 발굴, 온라인 신수요 창출 등 對中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

[그림1]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'23년 5.2% → '28년 3.4%로 지속적인 하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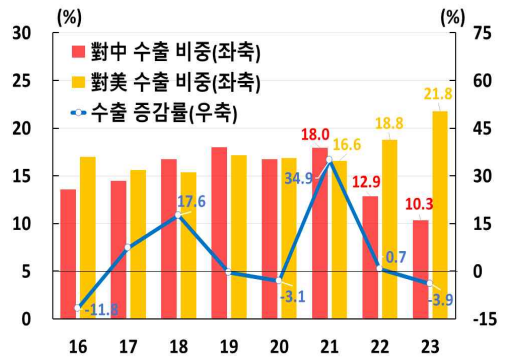
최근 중국경제 부진으로 인해 강원지역 對中 수출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

[그림 1]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<sup>1)</sup>



주: 1) 점선 부분은 IMF '23.7월 전망  
자료: IMF Economic Outlook

[그림 2] 강원지역 對中, 對美 수출 비중<sup>1)</sup>



주: 1) '23년은 1-8월 기준  
자료: 한국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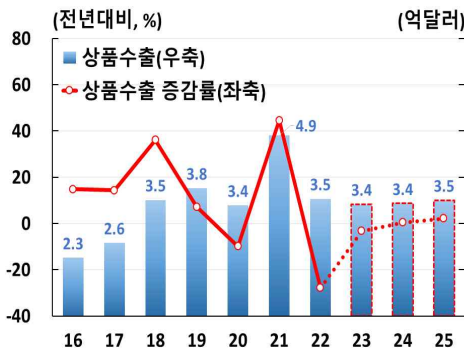
[그림2] 강원지역 수출은 3.9% 감소 하였으며 특히 對中 수출은 2.6%p 하락 (12.9% → 10.3%)

[그림3] 對中 상품 수출은 당분간 '22년 수준에 머무를 전망

상품수출은 '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

관광소득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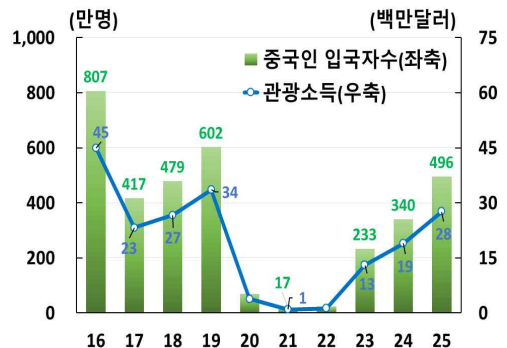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對中 상품수출 전망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, IMF Economic Outlook

[그림4] 對中 관광 소득도 '25년중에는 '19년 수준에 근접할 전망

[그림 4] 對中 관광소득 전망<sup>1)</sup>



주: 1) 추정치  
자료: 관광지식정보시스템, 외래관광객조사

# 최근 중국경제와 강원지역 對中 수출상황 평가

2023. 10.

한국은행 강원본부

작성자 : 강원기획금융팀 정용준 과장

# 1. 중국경제 현황 및 전망

□ **[현황]** 최근 중국경제는 리오프닝('22년말)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,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낮은 성장률을 시현

○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영향 등으로 '22년 4분기중 마이너스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로 전환한 후 부진한 모습

— 주요 수출국 경기 부진 등으로 제조업체들이 구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對美 수출이 감소

○ 부동산 시장은 중국 정부가 '21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한 데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달아 파산 위기\*를 맞으며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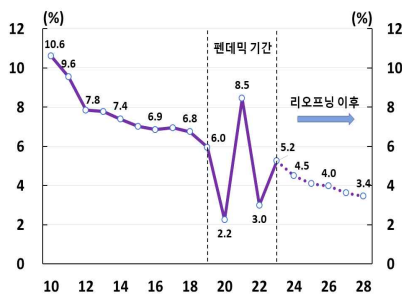
\* 중국 최대 자산규모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'23.8월 파산보호 신청

— 투자자들 또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투자심리가 냉각

□ **[전망]** 향후에도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('23년 5.2% → '28년 3.4%)이 예상(IMF '23.7월)되는 등 경기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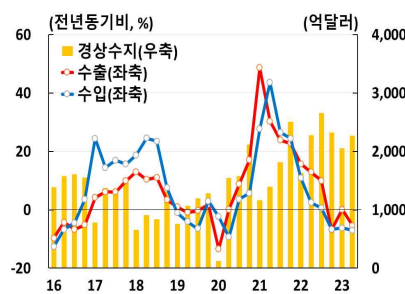
○ 이는 주요국 경기부진으로 '23년 수출이 전년대비 2.7%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, 부동산 시장도 규제 강화 여파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기인

**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<sup>1)</sup>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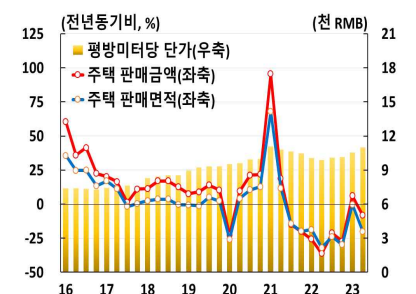
주: 1) 점선 부분은 IMF '23.7월 전망  
자료: IMF Economic Outlook

**중국 통관수출입 및 경상수지**



자료: 중국해관총서

**중국 부동산 판매금액 및 면적**



자료: 국가통계국, Haver Analytics

<참고 1>

### 강원지역 對中 수출 개황

□ **[GRDP의 1.1% 수준]** 강원지역에서 對中 상품수출\*이 차지하는 비중은 1.1%(’21년 GRDP 대비) 수준으로 광업(1.2%), 전기·가스업(1.3%)과 유사

\* 대중 서비스수출 관련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어 상품수출을 대상으로 기술

○ ’21년 기준 강원지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%로 미국(16.6%)과 함께 높은 순위에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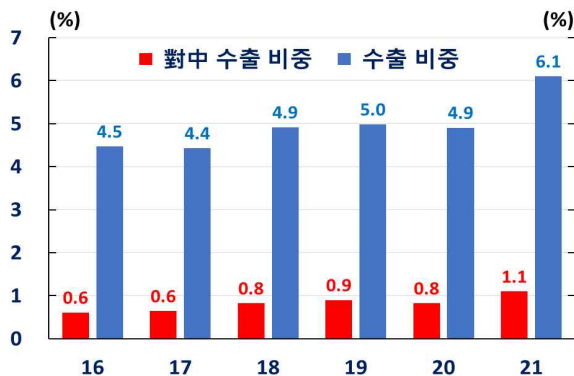
□ **[對中 수출은 큰 폭 감소]** 최근 對中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\* 강원지역 수출은 증가세가 정체\*\*되는 모습

\* 對中 수출 : ’22년 -27.9%, ’23년 -20.3%(전년대비 증감률)

\*\* 강원지역 수출 : ’22년 0.7%, ’23년 -3.9%(전년대비 증감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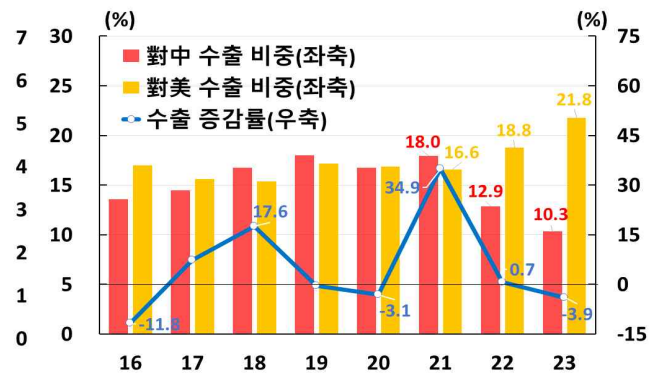
○ 이에 따라 ’22년부터 對美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對中 수출을 추월(對中 수출비중 10.3%, 對美 수출비중 21.8%, ’23년 1~8월 기준)

강원지역 GRDP 대비 수출 비중<sup>1)</sup>



주: 1) 명목 GRDP(부가가치) 기준  
자료: 통계청, 한국무역협회

강원지역 對中, 對美 수출 비중<sup>1)</sup>



주: 1) ’23년은 1~8월 기준  
자료: 한국무역협회

## 2. 강원지역 對中 수출 현황 및 전망

### (현황)

□ [크게 줄어드는 상품수출] 對中 상품수출은 중국 경기가 둔화 국면('21년 하반기)에 접어들면서 크게 줄어든 상황

○ 경기 둔화가 시작되었던 시점('21년 3분기 1.4억달러)에 비해 43%('23년 2분기 0.8억 달러) 감소

○ 주력 수출 품목별로 보면 의료용 전자기기는 경기둔화 이전 수준을 회복\*하였으나 면류\*\*, 화장품은 여전히 부진

\* 원주의료기기전시회('22년말) 등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기인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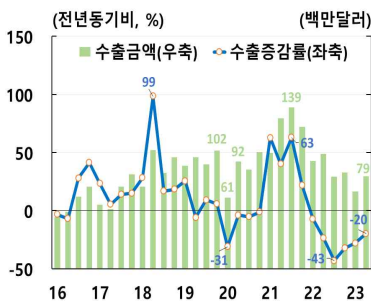
\*\* 특히 면류의 경우 '22.4월 일부기업의 유통기한 이중표기 논란 등으로 수요가 급감

□ [빠르게 회복하는 관광소득] 중국인 관광객 방문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나 리오프닝 이후 급증

○ 중국인 입국자수(전국 기준)가 금년 2분기에 '19년 2분기(147만명)의 27%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강원지역의 관광소득\*도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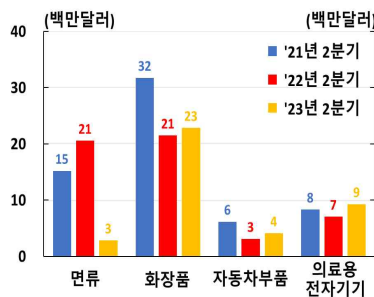
\* 중국인 관광객 소비액 추정 내역은 “<참고 2> 강원지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소비금액 시산” 참조

對中 상품수출 추이<sup>1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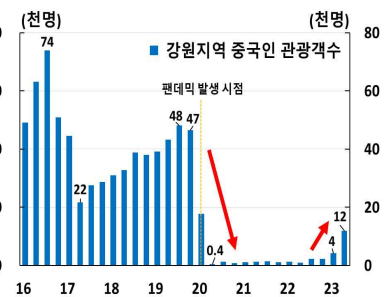
주: 1) 분기자료  
자료: 한국무역협회

對中 주력 품목별 수출액<sup>1)</sup>



주: 1) '23년 2분기 기준 4대 수출품목  
자료: 한국무역협회

강원지역 중국인 관광객수<sup>1)</sup>



주: 1) 추정치  
자료: 관광지식정보시스템

(전 망)

◆ 강원지역 對中 상품수출은 당분간 부진하겠으나, 관광소득은 빠르게 회복할 전망

□ [상품수출, 부진 지속] 중국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강원지역 對中 상품수출이 '21년(4.9억달러)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

○ 다중 상관관계 분석 결과, 對中 상품수출은 '23년에는 3.4억달러(전년대비 증감률 -3.4%), '24년에는 3.4억달러(0.4%), '25년에는 3.5억달러(2.1%)에 그칠 것으로 추정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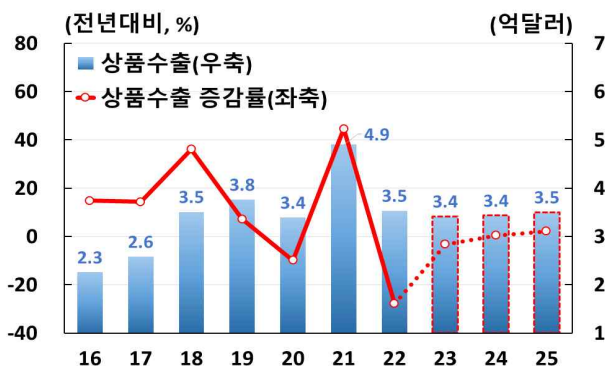
\* 추정 내역은 “<참고 3> 강원지역 對中 상품수출 규모 시산” 참조

□ [관광소득, 견조한 회복] 리오프닝에 더하여 8월중 중국정부가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

○ 對中 관광소득은 '23년에는 1천3백만달러(전년대비 증감률 +927%), '24년에는 1천9백만달러(+46%), '25년에는 2천8백만달러(+46%)으로 추정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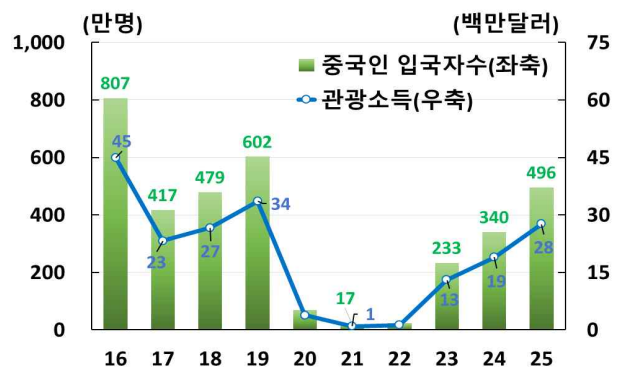
\* '23~'25년 중국인 입국자수는 각각 233만명, 340만명, 496만명으로 추정. 자세한 내용은 “<참고 4> 중국인 입국자수 시산” 참고

對中 상품수출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, IMF Economic Outlook

對中 관광소득<sup>1)</sup>



주: 1) 추정치  
자료: 관광지식정보시스템, 외래관광객조사

### 3. 대응 방향

- **[수출 유망상품 발굴]** 對中 수출 전망이 밝은 품목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력 상품으로 육성
  - 韓流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품(예: 주류),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상품(예: 수소) 등을 주력 상품으로 고려
    - 지역내 주류업체(원주소재 원스피리츠 등), 청정수소업체(태백소재 SK에코플랜트 등) 제품의 對中 수출 확대 방안\*을 모색
      - \* 지난해 원주의료기기박람회 개최에 힘입어 의료기기 수출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유망상품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
  
- **[온라인을 통한 신수요 창출]** 오프라인을 통한 수출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을 활용하여 수요 확대를 도모
  - 중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판매 사이트 등을 활용\*하여 중국 소비자들이 강원지역 생산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
    - \* '20.6월 道는 중국 남경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경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함으로써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수출규모가 평년 실적을 상회
  
- **[수도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]** 중국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소득 증대도 병행 추진
  - 중국 관광객은 주로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강원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
    - 수도권 핵심 관광지\*(경복궁, 에버랜드 등) 이용 후 강원지역 방문시 숙박·관광시설 이용료 할인, 강원지역 특산품 제공 등을 고려
      - \* '19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경복궁(147만명), 남이섬유원지(117만명), 에버랜드(89만명) 순이었음



<참고 2>

### 강원지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소비금액 시산

■ 강원지역 방문 중국인 관광객수와 강원지역 방문 중국인 1인당 소비금액을 곱한 후 평균환율('23년 1~8월)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

○ [강원지역 방문 중국인 관광객수] 중국인 입국자수 x 2.94%\*

\* 외래관광객조사 '15~'19년중 중국인 관광객의 강원지역 방문 평균비율

○ [강원지역 방문 중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] \$1,689\* x 0.374\*\* x 0.3\*\*\* = \$190

\* 중국인 관광객 1인 소비금액

\*\*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비 비중인 62.6%('19년 외래관광객조사)를 제외

\*\*\* 쇼핑비를 제외한 금액의 30%

<참고 3>

### 강원지역 對中 상품수출 규모 시산

■ '23~'25년 강원지역 對中 상품수출 규모는 다음과 같은 다중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시산

○ 중국의 수입 증감률 및 경제성장률과 강원지역 對中 상품수출 규모간의 관계를 추정

○ 추정식에 '23~'25년 수입 증감률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(IMF '23.7월)를 적용하여 강원지역 對中 상품수출 규모를 도출

<참고 4>

### 중국인 입국자수 시산

■ 2023 : 233만명

○ '23년 2분기 국내 중국인 입국자수의 전년동월비 평균 증감률로 올해 8~12월 입국자수를 추정하여 시산

■ 2024 : 340만명

○ 최근 6개월('23년 2~7월) 평균 증감률(전기비)을 적용하여 추정

■ 2025 : 496만명

○ 최근 6개월('23년 2~7월) 평균 증감률(전기비)을 적용하여 추정